

Vol. 86

2023년 2월  
해사안전

#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

IMO 국제해사 정책동향은 해양환경, 해사법률, 해사정책, 해사안전, 전략계획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발간물로,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([www.kmi.re.kr](http://www.kmi.re.kr))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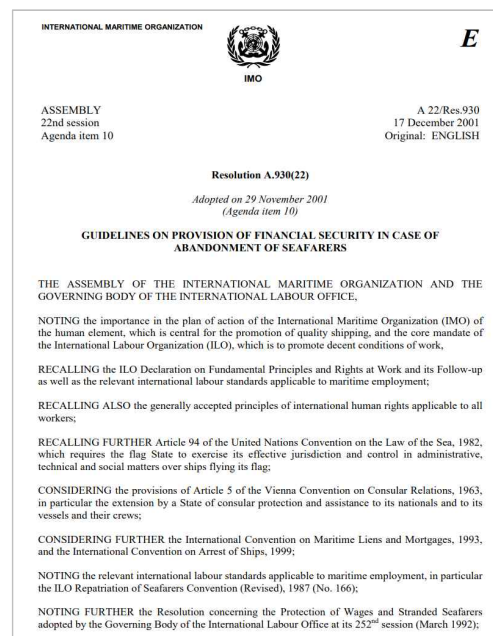
- 총 괄 박한선 실장
- 감 수 이연경 본부장
- 발행인 김종덕 원장
- 발행처 물류·해사산업연구본부  
해사산업연구실
-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 
301번길 26(동삼동)
- TEL. 051-797-4800
- FAX. 051-797-4810



## 비인간적인 선원 유기 사례 증가에 따른 피해 여전히 발생

## 코로나19에 따라 악화된 교대 환경은 선원 유기 건수를 더욱 증가시켜

- ▶ IMO는 선원 유기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IMO-ILO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음 <sup>a)</sup>
- 국제선박공급자협회(ISSA: International Ship Suppliers' Association)의 지원으로 IMO와 국제노동기구(ILO: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)는 선원 유기 사건에 대한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
  - 선원 유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은 이해관계자의 유기 사건 해결을 지원하고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 함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
  - '선원 유기'는 2001년 선원 유기에 관한 IMO/IL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'선주와 선원 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'을 특징으로 하며, 선주가 적시 송환, 미지급 보수 지급,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, 적절한 음식, 숙소,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함

〈그림 1〉 선원 유기 사건 보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(좌) 및 선원 유기에 관한 IMO/ILO 가이드라인(우) <sup>b),c)</sup>

자료 : IMO 및 ILO 홈페이지

- ▶ 국제기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고되지 않은 사례로 인해 데이터베이스 신뢰성에 대한 우려 있어 <sup>a)</sup>
- IMO 사무국은 기국과 항만국에 연락하여 정보를 전달받아 MLC 2014 개정안의 관련 지침 및 적용에 대해 조언하며, 특정 사안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 활동을 수행함
  - 회원국, 이해관계자, 기국, 항만국, 선원국과 비정부기구가 선원 유기 사건을 보고할 수 있는데, 기국, 항만

국, 선원국들은 버려진 선원을 송환할 1차(기국), 2차(항만국), 3차(선원국)적 책임이 있음

- 그러나 2016년 말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되지 않은 선원 유기 사례가 있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화와 신뢰성에 대해 업계와 언론이 우려를 표명하면서, IMO, ILO, 국제해운회의소(ICS: (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) 및 국제운송노동자연맹(ITF: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)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협력하며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에 노력함

- ▶ IMO는 2004년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후 2022년 12월 23일까지 9,971명의 선원에 관해 713건의 선원 유기 사건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었으며,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급격히 증가함 <sup>a)</sup>
  - 2022년 12월 23일 기준 713건 중 305건이 해결되었고 151건이 분쟁 처리되었으며 50건이 비활성화되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207건이 여전히 남아있음
  -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발생 건수는 12건에서 19건 사이였지만,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보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7년 55건, 2018년 44건, 2019년 40건임
  - 더욱이 2020년 85건, 2021년 95건으로 발생하였는데, 이것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불분명하지만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원활한 선원교대 악화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음

## ■ 2023년에도 여전히 전 세계 선주들의 선원에 대한 비인간적인 유기 행태 이어져

- ▶ 나이지리아 선주 Red Star Oil & Gas는 유조선 선원 사망에 대한 보고를 부인함 <sup>d),e)</sup>
  - 2023년 2월 나이지리아 해군 함정 Beecroft는 라고스(Lagos) 앞바다의 유조선에서 조난 신호를 받아 위치 파악 후 구조대를 배치하였으며, 나이지리아 당국이 선원들을 후송하였지만 6명이 사망함
  - 당국은 탱크 청소 작업 중 질식 가능성을 제기하였지만, 선주는 선박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선원 사망 사실에 대한 당국의 보고를 부인함
- ▶ 토고 국적 화물선에 승선한 선원들은 세네갈 항만국의 도움을 받지 못한채 1년 넘게 유기됨 <sup>f)</sup>
  - 토고 기국의 화물선 MV Onda에 승선한 네 명의 선원들은 엔진 수리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 경고등에 전원을 공급할 수 없어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한 상태에 놓임
  - 더군다나 선원들은 몇 달 동안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선박이 세네갈 다카르 항구에 위치하면서 항만국에 1년 넘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항구가 바쁘다는 핑계로 입항을 거절하고 중재를 무시해왔음
  - 국제운수노동자연맹(ITF: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' Federation)는 선원들을 대신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지불될 때까지 선박을 압류하기 위해 세네갈 법원에 출두함
  - 2023년 1월 말 선주 측 변호사는 선박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미지급된 임금에 미치지 못한 액수를 제안하

여 ITF에서 제안을 거부함

- 세네갈이 비준한 해사노동협약(MLC 2006)에 따른 명확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, 항만국이 도움을 거부하는 동안 선원들은 집으로 가기 위해 배를 떠날 수 없는 극악한 상황임

## ■ 해사분야 이해관계자들은 현재의 선원 전략을 재검토하고 선원을 적절하게 대우해야

- ▶ 선사는 선원을 위한 선내 안전한 작업환경과 양질의 생활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, 급변하는 산업 변화에서도 선원의 기본적인 대우와 복지는 지속적으로 상향해야 함
  - 현재 해상 운송에서 주요 과제는 탈탄소화와 디지털화를 손꼽고 있지만, 코로나19 발생과 산업 변화라는 명목하에 선원에 대한 의무와 복지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간과해서는 안됨
  - 또한, 기국 및 항만국은 육상 근로자가 보장받는 수준의 복지가 선원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협회 등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함
  - 더불어 2022년에 보고된 사례 중 15개 기국은 2006년 MLC를 비준하지 않았는데<sup>a)</sup>, 우리나라 선원의 안전을 위해 2006년 MLC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의 가능한 한 빠른 비준을 강력히 권장해야 함

김보람 전문연구원

물류·해사산업연구본부 해사산업연구실  
(zzz3678@kmi.re.kr / 051-797-4640)

### 참고 자료

- a) <https://www.imo.org/en/ourwork/legal/pages/seafarer-abandonment.aspx> (검색일: 2023.02.10.)
- b) <https://www.ilo.org/dyn/seafarers/seafarersbrowse.home> (검색일: 2023.02.10.)
- c) IMO, Resolution A.930(22), GUIDELINES ON PROVISION OF FINANCIAL SECURITY IN CASE OF ABANDONMENT OF SEAFARERS (검색일: 2023.02.10.)
- d) [https://safety4sea.com/nigerian-owner-denies-deaths-of-seafarers-onboard-tanker/?utm\\_source=noonreport&utm\\_medium=email&utm\\_campaign=safety&utm\\_source=newsletter&utm\\_medium=email&utm\\_campaign=SAFETY4SEA+--+daily+08%2F02%2F2023](https://safety4sea.com/nigerian-owner-denies-deaths-of-seafarers-onboard-tanker/?utm_source=noonreport&utm_medium=email&utm_campaign=safety&utm_source=newsletter&utm_medium=email&utm_campaign=SAFETY4SEA+--+daily+08%2F02%2F2023) (검색일: 2023.02.10.)
- e) <https://safety4sea.com/nigeria-six-crew-died-due-to-possible-asphyxiation-onboard-tanker/> (검색일: 2023.02.10.)
- f) [https://safety4sea.com/seafarers-seize-ship-over-owed-wages-and-neglect/?utm\\_source=noonreport&utm\\_medium=email&utm\\_campaign=safety&utm\\_source=newsletter&utm\\_medium=email&utm\\_campaign=SAFETY4SEA+--+daily+08%2F02%2F2023](https://safety4sea.com/seafarers-seize-ship-over-owed-wages-and-neglect/?utm_source=noonreport&utm_medium=email&utm_campaign=safety&utm_source=newsletter&utm_medium=email&utm_campaign=SAFETY4SEA+--+daily+08%2F02%2F2023) (검색일: 2023.02.10.)
- g)